

<만세전>과 <광야>의 인물 태도 비교

20213 남아론



만세전 - 염상섭



- 시대 상황에 좌절하고 고뇌하지만 의지적인 행동을 드러내지 못하는 조선의 지식인
- 현실에 대해 무관심(무기력)한 지식인

나는 그 소위 우국지사야 아니나 자기가 망국 백성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잊지 않고 있기는 하다

망국 백성이 된 지 벌써 근 십 년 동안 인제는 무관심하도록 주위가 관대하게 내버려 두었었다.

무덤이다!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! . . . 공동묘지다!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 봐 애가 말라 하는 가혹한 백성들이다!

구더기가 득시글득시글하는 무덤 속이다. 모두가 구더기다. 너도 구더기, 나도 구더기다.

애국심이 투철하지는 않지만 조선의 백성임을 잊지 않을 정도인 '나'
현실에 무관심한 '나'

무덤 = 조선의 참담한 시대 상황
구더기 = 저항하지 못하고 굴종하며 살아가는 조선인

'나'의 극단적이고
허무주의적인 현실인식



광야 - 이육사



- 조국 독립을 염원하며 밝은 미래가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함
-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 의지를 드러내는 비장하고 결연한 태도

지금 눈 나리고 /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/
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

다시 천고의 뒤에 /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/
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

화자의 독립에 대한 의지,
자기희생적 태도